

紅樓夢 속의 정신질환과 하이퍼그래피아

李 知 恩*

<目 次>

I. 서 론	III. 정신질환과 紅樓夢
II. 주인공의 정신질환	1. 주인공의 정신질환과 글쓰기
1. 林黛玉의 우울증과 불면증	2. 작자와 하이퍼그래피아
2. 賈寶玉의 조울증과 간질	IV. 결 론

I. 緒 論

17세기 중국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 《紅樓夢》에는 인생의 生老病死에 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특히 인간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전문가적 고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작자는 신체의 질병이 마음과 뇌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¹⁾,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와 정신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작품의 주인공인 林黛玉과 賈寶玉을 포함한 적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 육체적

* 高麗大, 慶北大 講師

1) 이러한 작자의 의도는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10회에서 尤氏는 秦可卿의 병에 대해 “저 에의 병이란 것도 실은 그런 성미에서 생긴 거죠.”라고 평가했으며, 張太醫은 秦可卿을 진맥한 후 병인에 대하여 “이 총명이라는 것도 한도를 넘으면 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많게 되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많게 되니 자연히 신경을 많게 쓰게 되는 겁니다.”라 하여 마음과 건강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작품 속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

《紅樓夢》은 청춘남녀의 꿈을 그린 작품이다. 꿈은 의학적 측면에서 질병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정신질환 환자의 수면에는 특징적인 소견이 많아서 건강한 사람보다 꿈이 많아지고 꿈의 농도가 진해지기도 한다. 의학에서 꿈의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꿈을 질병에 관계있는 증상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²⁾ 《紅樓夢》에 등장하는 청춘남녀는 사랑을 꿈꾸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마음의 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大觀園 속에서의 꿈같은 생활은 그들에게 사랑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지만, 때때로 질병과 우울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청춘남녀는 또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악몽을 경험한다. 大觀園은 바로 꿈의 공간이자 多愁多病³⁾의 세계, 즉 질병의 大觀園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작품의 주인공이 지녔던 정신질환을 살펴보고, 그들이 겪었던 질환과 치료법을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건강한 정신세계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등장인물이 보이는 정신 질환과 글쓰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작자의 창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의 범

2) 역대의 의학자들은 五臟六腑의 증후를 논하면서 夢象이나 꿈의 상태를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夢象은 臟象을 구성하고 있는 한 성분일 뿐만 아니라 臟象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夢象은 자연히 병리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는 표지의 하나가 된다. 무릇 “꿈이란 心神不安 증거의 하나로 사람의 形과 만나는 것이 일이고 神과 만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였듯이 한의학에서는 어떤 夢象의 증상을 치료하는 몇몇 전문적이고도 주요한 약물이나 처방이 있었다. 잠과 꿈은 흥미롭게도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한다.

3) 多愁多病이란 말은 보옥과 대옥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 구절은 보옥이 《西廂記》 第一本 第四折에서 張生이 부른 노래를 인용한 것으로, 제23회에서 보옥은 자신과 대옥을 가리켜 “이 몸은 근심 많고 병 많은 몸이요 그대는 세상에 들도 없는 절세의 미인(多愁多病身, 傾國傾城貌).”이라 이야기했다.

위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II. 주인공의 정신질환

1. 林黛玉의 우울증과 불면증

임대옥은 작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 아름답고 총명한 그녀는 明清代 佳人들의 특징인 ‘병약함의 미학’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우선 그녀의 외형을 살펴보자.

찌푸린 듯 만 듯 반달처럼 휘우듬한 눈썹에 웃는 듯 마는 듯 정겨운 한 쌍의 눈, 보조개에 오목오목 수심이 배여 추연한 자태, 게다가 몸에 배인 병식은 그녀를 한결 더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눈에 맺힌 축축한 이슬은 구슬처럼 반짝이고 가냘픈 그 자태 더욱 요염하여 앉으면 물에 비친 한 떨기 꽃이요, 걸으면 바람에 하늘거리는 실버들 같았다. 가슴 속에는 比干보다 구멍이 하나 더 있는 듯싶고 병든 몸은 서시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제3회)⁴⁾

찌푸린 듯 만 듯 휘우듬한 눈썹, 가냘픈 몸매, 수심이 배인 자태 등은 그녀의 병약함⁵⁾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녀를 가리켜 ‘多病 西施

- 4) 《紅樓夢》 1권, 73-74쪽. 본 논문의 예문은 안의운, 김광렬 번역의 청년사본 《紅樓夢》에서 인용하였다. 오역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원문은 생략하였다.
- 5) 평소 대옥은 건강관리에 매우 소홀했다.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고 식후에 잠을 자서 위장을 해쳤으며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제 27·45회), 여름이면 더위를 먹고(제29회), 봄과 가을로 기침병과 감기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제45회), 조금만 슬픔에도 짜증을 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예민한 성격은 사랑을 쉽게 믿지 못하게 했으며, 사랑을 믿지 못하여 더욱 병이 깊어졌고, 깊어진 병으로 인해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제98회),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대옥은 비록 賈府에 얹혀사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풍족한 약제와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옥이 많은 병을 안고 살아간 이유는

라 부른다.

생김새나 몸매는 三姐 아가씨를 꼭 닮았고 뱃속엔 천하의 문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늘 병으로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날에도 겹옷을 입고 계시요. 몸이 좀 나오면 나와서 산책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다가도 바람만 좀 맞으면 금방 쓰러지지요. 아무 소리나 지껄이기 좋아하는 저희들은 뒤에서 그 아씨를 ‘多病 西施’라고 한답니다.⁶⁾ (제65회)

병약한 몸의 소유자인 그녀는 마음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 그녀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감상적이며 매우 예민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 제26회에서 보옥을 찾으러 간 대옥에게 晴雯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대옥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자.

대옥은 귀 밑이 화끈해지며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한번 큰소리로 꾸짖어줄까 하다가 꼭 참고 말았다. ‘여기는 외가인 만큼 내 집이나 다를 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이 집에 얹혀 있는 신세가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양친께서도 안 계시 의지가 없이 외톨이로 남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니 내노라고 큰소리 칠 처지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대옥은 새삼스레 실움이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⁷⁾ (제26회)

대옥은 晴雯의 태도에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한다. 대옥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씨의 신분을 이용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晴雯의 태도를 시녀의 실수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속으로 화를 삼킨 채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되돌린다. 이는 대옥의 내성적이고 소

마음의 병을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병은 寶釵의 출현과 함께 생겨난 질투이자 의심이었고, 痴情 즉 바보 같은 사랑의 병이다

6) 《紅樓夢》 4권, 33쪽.

7) 《紅樓夢》 2권, 20쪽.

극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그녀는 이런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賈府내에서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대옥은 그 날 저녁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잠을 설치고 이튿날 아침 뒤늦게야 일어났다. 자매들이 모두 정원에 모여 餞花會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남들에게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급히 옷을 갈아입었다.⁸⁾ (제27회)

원통함과 설움으로 늦게 잠이 든 그녀는 아침이 되자 혹시 남들에게 게으름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열린 옷을 갈아입는다. 대옥이 자신의 처지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불면증으로 이어진다. 불면증은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 중의 하나로, 작품에는 대옥의 불면이 비일비재하게 묘사된다. 제26회에서 晴雯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밖에서 기다리던 대옥은, 보옥과 함께 나오는 寶釵를 발견한다. 그 광경을 목격한 대옥은 처소로 돌아와 수심에 잠겨 눈물을 흘리다가 二更이 되어서야 잠이 든다.⁹⁾ 제45회에서 보채는 대옥에게 상등 燕窩를 보내주고 보옥이 병든 대옥을 찾아오게 되는데,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게 된 대옥은 한편으로는 보채의 신세를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 보옥의 애정을 의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四更이 넘어서야 잠이 든다.¹⁰⁾

8) 《紅樓夢》 2권, 214쪽.

9) 《紅樓夢》 2권 205쪽: 혼자 남은 대옥은 두 팔로 무릎을 싸 앉고 앉아 침상머리에 몸을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짓고 있었다. 그런 듯이 앉아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의 조각과도 같았다. 대옥은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10) 《紅樓夢》 3권 236쪽: 대옥은 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보채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한편 어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 보채가 여간 부럽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엔 또 보옥이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보옥과는 전부터 절친한 사이건만 무엇 때문에 의심만은 좀처럼 가져지지 않는 걸까?’ …… 대옥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옷을 적셨다. 이날 밤 대옥은 四更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이런 대옥의 소심한 성격이 대옥의 병을 더 악화시켰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연구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¹¹⁾ 대옥의 측근들도 대옥의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시녀 紫鵲과 雪雁은 대옥의 이러한 성미를 진작부터 잘 알고 있는 터였다. 할 일없이 집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면 늘 고개를 숙이고 수심에 잠겨 있었고, 연신 긴 한숨만 내쉬거나 까닭 없이 눈물을 흘리기가 일쑤였다. 처음에는 돌아간 부모 생각에, 아니면 떠나온 고향 생각에, 또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 여러모로 위로도 해주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고 또 새해가 되어도 늘 그 모양이었으므로 나중엔 습관이 되어 아무도 그런 일에 별다른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되었다.¹²⁾ (제27회)

대옥의 시녀들은 비록 대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으며, 대옥 역시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다. 대옥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하거늘,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대옥은 잦은 병치레로 인해, 바깥출입을 삼간 채 자신의 방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춘분과 추분 전후로 기침병을 앓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정양을 해야 했다.

때때로 우울해지면 자매들이라도 찾아와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보채들이 찾아와 문병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몇 마지 오가지 않아 벌써 싫증을 내며 얼굴을 찡그렸다.¹³⁾ (제45회)

11) 최근 성격과 암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쥐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의학저널 ‘호르몬과 행동’에서 소심하고 적극성이 없는 쥐들이 모험심이 강한 쥐들보다 암에 잘 걸리고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ttp://www.etimes.net> 10월 20일자 뉴스 참고.

12) 《紅樓夢》 2권, 204쪽.

13) 《紅樓夢》 3권, 227쪽.

대옥은 정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방문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허약한 그녀의 몸은 문병조차 꺼리게 만들었고, 홀로 있는 시간은 그녀의 우울함을 키웠다. 우울증은 단절감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에¹⁴⁾, 그녀의 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우울함은 꽃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그러나 그녀는 떨어지는 꽃잎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가는 봄이 서럽고 떨어지는 꽃잎이 애달파 손수 꽃잎들을 쓸어 모아 장례를 지내 주노라니 마치 자기의 덧없이 청춘을 조상하는 것만 같아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슬픈 글귀를 읊조렸던 것이다.¹⁵⁾ (제28회)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하지만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연상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감상적인 태도는 그녀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보옥에 대한 의심 역시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제20회에서 보옥이 보채의 집에 들렀다 조금 늦게 대옥의 집을 방문하자, 보옥의 마음을 의심한 대옥은 죽어버리고 싶다고 고백한다.¹⁶⁾ 제28회에서 한밤중에 보옥을 찾아간 대옥은 怡紅院의 문이 닫힌 것을 보고는 보옥이 고의로 문을 걸어 잠근 것이라 의심한다.¹⁷⁾ 예로부터 다정한 공자는 순진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 보옥 역시 대옥을 사랑했지만 보옥의 다정함은 언제나 다른 소녀들을 향해

14)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 155 쪽

15) 《紅樓夢》 2권, 222쪽.

16) 《紅樓夢》 2권, 75쪽 : 대옥의 얼굴은 이내 새침해졌다. “글쎄 그럴 줄 알았더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달려왔을 건데 …… 내가 내 몸을 못살게 군대도 죽는 건 난데 오빠가 상관할 건 없잖아요. …… 난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요.” …… 보채가 보옥을 끌고 가니 대옥은 더욱 울화가 치밀어 창가에 붙어선 채 울음을 터뜨렸다.

17) 《紅樓夢》 2권, 222 쪽 : 대옥은 어젯밤 晴雯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은 일로 하여 보옥에게 잘못 오해를 품고 있었다.

넘쳐났고 그것은 대옥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몸과 영혼을 병들게 했다. 보옥을 향한 사랑으로 생긴 병은 보옥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성격 좋은 보체가 보옥과 결혼하는 것을 원했고, 보옥과 보체가 결혼하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된 대옥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모저모 생각해 보고 난 대옥은 어차피 빨리 죽어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았다. 부질없이 목숨을 부지했다간 싫은 일만 보게 될 거고 또 그때는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대옥은 다시 한 번 부모 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일부러 몸을 상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¹⁸⁾ (제89회)

이런 극단의 결심을 실행에 옮겨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도중에도, 보옥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녀를 소생하게 만든다.

대옥은 금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내고는 도리어 혼자서 기뻐했다. ‘중이나 도사의 말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돼. 정말로 금과 옥의 인연이란 것이 있다면 보옥 도련님이 어떻게 그 옥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 어찌면 나 때문에 저 금과 옥의 인연이 갈라지게 되는 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마음은 전에 없이 편안하고 유쾌해져 이 날은 하루 동안의 피곤도 말끔히 사라지는 듯싶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책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¹⁹⁾ (제95회)

그러나 보옥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은 오래가지 못한다. 대옥의 성격과 허약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오던 王夫人은 보옥의 혼기가 다가오자 보체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는다.²⁰⁾ 보옥과 보체의 결혼이 본격

18) 《紅樓夢》 6권, 145쪽.

19) 《紅樓夢》 6권, 246쪽.

20) 《紅樓夢》 6권, 155쪽 : 대옥의 새침한 성격이 그 애에게는 좋은 점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애를 보옥의 짝으로 맞추어주지 않은 점도 바로 그 점이야.

화되면서 대옥은 죽음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오늘 보옥과 보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옥은 그러지 않아도 그 점을 오래 전부터 걱정해오고 있던 터이라 그만큼 자극이 컸었고 또 그래서 갑자기 울화가 치밀어 정신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슬프다는 생각보다도 오직 한시바삐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말끔히 끝맺고 싶었다.²¹⁾ (제97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대옥은 그 생각을 현실에 옮겼다. 대옥은 하루하루 식사량을 줄였고, 결국은 죽조차 넘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죽음을 각오한 채 몸을 돌보지 않자, 대옥의 병은 더욱 심각해졌고 매일 약을 써도 병은 더해갈 뿐이다. 그녀는 피와 눈물을 토하고 자신의 詩稿를 불에 태운 후 보옥의 이름을 부르며 결국 목숨을 끊고 만다. 그렇다면 대옥의 병은 과연 무엇일까. 御醫 王太醫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린다.

육맥이 매우 팽팽한 것은 평소의 鬱結, 말하자면 마음에서 오는 병이지요. …… 이 병은 늘 현기증이 나고, 밥맛이 없고, 꿈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녘이 되면 반드시 몇 번씩 잠을 깨게 될 거구요. 낮이면 자기에게 관계없는 말을 듣고도 화를 내기가 일쑤고 의심과 겁이 많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성질이 괴벽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간장과 심기가 쇠약한 탓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병증이 생긴 건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는가요?²²⁾ (제83회)

그의 진단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皇帝內經》에 “생각하면

게다가 대옥인 저렇게 약하지 않니? 아무래도 장수할 사람은 못 돼 그러니 역시 보체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제90회)

21) 《紅樓夢》 6권, 279-280쪽.

22) 《紅樓夢》 6권, 16쪽.

마음에 神이 돌아온 채 나가지 않으며 正氣가 정체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凝結한다”고 하였다. 苦慮, 苦惱가 깊으면 의지는 굳어지며 정신은 집중상태가 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에 기가 한 곳에 몰려서 풀리지 않는 鬱結이라는 병리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불면증의 원인이기도 한다. 鬱證은 정서가 조화되지 못하고, 기기가 울체하여 생기는 병증으로, 현대의학의 신경쇠약, 히스테리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²³⁾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대옥의 주위 사람들도 대옥의 우울증 증상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대옥인 물론 좋은 애지만 속이 너무 침울한 편이어서(心重些) 항상 몸이 약하다니까. 머리가 총명한 점에서는 보옥과 비한대도 부족할 것이 없겠지만 사람을 싸우는 면에서는 보채의 너그럽고 겸손한 태도를 따를 수가 없어.²⁴⁾ (제84회)

우울증²⁵⁾은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써, 히포크라테스가 鬱症(melancholia)이라는 이름으로 증상을 기술해놓았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²⁶⁾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잃는 것과 같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고난은 나이가 든 후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23) 《新中國漢醫學》, 370쪽.

24) 《紅樓夢》 6권, 44쪽.

25) 우울증(depression)은 슬픔, 정신운동 저하, 의욕상실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가리킨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슬픔, 절망, 비판, 자기비하, 자기비난, 식욕감퇴, 수면장애, 불면증을 겪게 되며 일상생활의 보람이나 흥미가 감소 또는 상실되고 열정이나 활력이 감소되며 사고와 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매우 흔한 것이지만,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를 위협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26)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데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경우, 가볍거나 심한 경우, 급성이거나 만성적인 경우 등이 있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흔한데, 발생빈도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점차 늘어나며, 여성의 경우 35~45세 사이가 가장 높다.

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심리화적인 원인과 생화학적 원인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옥에게 부모님의 죽음과 외갓집에서의 생활, 삼각관계는 우울증의 병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 환자의 수면에는 특징적인 소견이 많은데, 우선 건강한 사람보다 꿈이 많아지고 꿈의 농도가 진해진다. 대옥이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렸던 것은 우울증과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67회에서 보체가 대옥에게 지적하였듯 슬픔이란 스스로 병을 키우는 큰 질병이다(傷心是自己添病的大毛病). 만약 그녀가 부모를 잃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외가인 賈府에 온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²⁷⁾, 너무 많은 생각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대옥 역시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2. 賈寶玉의 조울증과 간질

보옥은 인자한 할머니 大夫人와 엄격한 아버지 賈政의 슬하에서 자라난 허약한 몸과 비상한 두뇌와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제3회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자.

얼굴은 분가루를 뿌려놓은 듯 뽀얗고 입술은 연지를 찍은 듯 앵두 빛으로 물들어 있고, 맑은 눈동자에는 인정이 넘쳐흐르고 입가에는 상냥한 웃음이 감도는데 천생의 풍류는 눈썹에 영겨 붙고 평생의 온갖 생각은 눈초리에 등지를 튼 것만 같았다.²⁸⁾ (제3회)

27) 사람들의 교류가 대옥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던 것은 제20회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옥이 늘 식후에 잠을 자서 위장을 해치고 또 그 대신 밤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은근히 걱정되던 것인데 다행히 보체가 와서 웃고 떠들고 하는 바람에 대옥의 감기는 가신 듯이 달아난다. 《紅樓夢》 2권, 64쪽 참고.

28) 《紅樓夢》 1권, 71쪽.

하얀 얼굴과 붉은 입술, 맑은 눈동자와 상냥한 웃음의 이 미소년은 아름다운 외모 속에 괴벽한 성격과 광증을 감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보옥이 처음으로 발작을 보이는 것은 대옥과의 첫 대면에서이다. 보옥은 通靈寶玉과 같은 옥이 대옥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通靈寶玉을 내동댕이치며 옥을 퍼붓기 시작한다. 발작을 일으키며 옥을 하는 보옥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²⁹⁾ 大夫人이 거짓말을 보태가며 달래자, 그는 곧 눈물을 거두고 해맑은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평상시의 보옥은 시를 좋아하는 재기로 가득 찬 소년이다. 제23회에서 보옥은 大觀園으로 이사 온 것을 만족해하며 평온한 환경 속에서 글과 시를 쓴다.³⁰⁾ 하지만 보옥에게 이런 즐겁고 평화로운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 차츰 싫증이 나며 까닭 모를 번민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졌다. 하지만 大觀園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태반이 철부지 소녀들이어서 한창 천진난만하게 뛰놀거나 할 때인지라 한테 어울려 웃고 떠들 줄은 알아도 보옥의 이런 심가를 알아줄 까닭이 없었다. 우울해진 보옥은 더 이상 大觀園 안에만 눌러 있기가 싫어 그 후부터는 나들며 놀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지만 하면 이내 어리석어지는 보옥이었다.³¹⁾ (제23회)

29) 보옥의 폭력적인 성향은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데, 제 29회에서 대옥과 사랑싸움을 하던 중에는 기물을 파괴하려고 하였으며, 제30회에서는 문을 늦게 열어주는 襲人을 향해 심한 발길질을 퍼부었다.

30) 《紅樓夢》 2권, 128-129쪽 : 이곳으로 옮겨온 보옥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으므로 더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날마다 누이들이나 하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거문고를 타고 장기를 두고 그림을 그리다가, 싫증이 나면 시를 짓고 봉황을 본떠 수를 놓다가, 지치면 뜰에 나가 꽃밭을 거닐기도 하고 흥이 나면 콧노레도 부르고 시도 읊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글자풀이, 수수께끼 맞추기 등 실로 안 하는 것 없이 자유분방한 나날을 보냈다.(제 23회)

31) 《紅樓夢》 2권, 131쪽.

이러한 보옥의 모습에서 躁症과 鬱症의 교차, 외부와의 접촉 시에 갑자기 어리석어지는 등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증세는 제25회에서 馬道婆의 범술과 맞물려 심각해진다

(대옥과) 단둘이만 남게 된 보옥은 대옥의 소매를 거머쥐고 빙글빙글 웃고만 있었다. 가슴 속에 할 말은 가득 차 있었지만 어쩔지 말이 입 밖에 나와 주질 않았던 것이다. 대옥은 또 대옥이 대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려 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보옥이 소리를 질렀다. “아이쿠, 머리아.” …… “아이쿠, 나 죽는다!” 보옥은 길길이 뛰어오르더니 마구 헛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쳤다.³²⁾ (제25회)

평온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시작된 보옥의 병증은 두통과 발작으로 전이된다. 보옥의 모습을 본 大夫人과 王夫人 및 왕자등의 부인이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오자, 보옥은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기까지 한다.³³⁾ 책에서는 이 괴이한 병의 원인에 대해 ‘옥을 잃어서’, 혹은 ‘마법에 걸려서’, ‘정신을 잃어서’라고 적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보옥의 병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옥의 모습은 히스테리 발작과 간질(만성적인 발작)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발작은 주로 청년기에 자주 나타나며 주로 정신적 자극이나 타격을 받았을 때 발생한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발병 이전에도 풍부한 감성, 불안정한 정서, 심장협착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 밖에도 보옥은 사소한 충격에도 혼절하여 쓰러지는데, 제27회에서 보옥은 대옥이 읊은 葬花詞를 듣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까무러진다.³⁴⁾ 보옥은 이러한 자

32) 《紅樓夢》 2권, 176쪽.

33) 《紅樓夢》 2권 176-177 쪽 : 보옥은 손에 잡히는 대로 칼이며 몽둥이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러대는 것이었는데 그 미친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 보옥과 熙鳳도 이제는 기맥이 쇠진한 나머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침대에 늘어진 채 헛소리만 거듭 내지르고 있었다.(제25회)

34) 《紅樓夢》 2권, 218-221쪽 : 보옥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그쪽에서 울음 섞인 노래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 여기까지 듣고 난 보옥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쓰러졌다.(제27회)

신의 病因이 대옥을 향한 사랑에서 말미암았다고 고백한다.

“대옥 누이 이 가슴속에 서리고 서린 심사를 지금까지는 고백해 볼 용기가 없었어. 그렇지만 오늘은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어 용기를 내 고백한 거야.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어. 사실은 나도 누이 때문에 몸을 상하고 있었어. 그제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까지 숨겨왔을 뿐이야. 아마 대옥 누이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나아질까 보아. 잠을 자도 그렇고 꿈을 꾸어도 마찬가지로야. 난 한시도 대옥 누이 잊고선 살수가 없어.”³⁵⁾ (제32회)

襲人을 대옥으로 착각하고 털어놓는 보옥의 고백에서 대옥을 향한 애정이 그의 심신을 상하게 했으며, 이것이 중요한 病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백은 襲人으로 하여금 대옥을 더욱 경계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훗날 보옥과 대옥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의 말작은 제57회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보옥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대옥의 시녀 紫鵲이 대옥이 소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자, 대옥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보옥은 두 줄기 눈물을 쏟아내며 기이한 반응을 보인다.

눈알이 툭 불거져 나오고 입가로 마른 침이 주르르 흐르고 있는 것이 통 감각을 잃은 사람을 같았다. 베개를 베워주면 말없이 베고, 안아 일으키면 일으키는 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차를 주면 주는 대로 받아마셨다. …… 곧 달려온 유모가 보옥을 한참이나 살펴보며 이것저것 말을 물어 보았지만 보옥은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유모는 다시 보옥의 맥을 짚어보고 인중을 손톱으로 두어 번 힘껏 눌러보았다. 손톱자국이 깊숙이 나졌지만 그래도 보옥은 아픈 줄을 모르고 있었다.³⁶⁾ (제57회)

보옥의 증세는 通靈寶玉을 잃어버리는 사건 이후 본격화되고, 賈府의

35) 《紅樓夢》 2권, 320쪽.

36) 《紅樓夢》 4권, 126쪽.

가세가 기울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일련의 불행이 닥쳐옴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증세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제79회에서 晴雯이 죽자 보옥은 결국 자리에 눕고 만다.³⁷⁾ 보옥의 이 병은 한 달 안에 차차 나아졌지만, 병이 완전히 쾌유된 것은 아니다. 한편, 보옥은 잠을 잘 때 가위에 눌러 시녀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데,³⁸⁾ 보옥의 질환이 잠과 꿈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보옥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제83회에서 御醫 王太醫 마저 소화불량에다 감기 기운이 약간 겹친 정도로 대단치 않은 병이니 열만 내리게 하면 곧 나올 거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보옥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병은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상태만을 진찰하고 보옥의 병을 가볍게 대하여 병을 키우게 된다. 제95회에서 元春이 붕어하고 通靈寶玉을 잃고 난 후, 보옥은 완전한 백치의 상태가 된다.

보옥은 갈수록 더욱 바보가 되어갔다. 그렇다고 몸에 열이 나거나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게 보이면서 말이나 행동에 두서가 없었다. …… 어느 때와는 달리 보옥은 완전히 백치가 되어 있었다.³⁹⁾ (제95회)

완전한 백치의 상태에 이르는 하였지만, 보옥은 대옥과 결혼할 수 있다

37) 《紅樓夢》 5권, 313쪽 : 그날 밤 보옥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결에 晴雯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도깨비에게 쫓기듯 깜짝 놀라며 일어나 앉기도 했다. 그러더니 다음날부터는 식욕이 떨어지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두 최근에 大觀園을 수색한 일로인해 사기가 쫓겨나고, 迎春이 떠나가고, 晴雯이 죽은 뒤로 그로부터 받은 치욕과 놀라움과 슬픔의 결과였다. 게다가 감기까지 겹치다 보니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제79회)

38) 《紅樓夢》 6권, 13쪽 :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 별안간 가슴이 아프다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데 무어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마치 가슴이 칼에 찔린 것같이 아프다면서 말이야. 밤새껏 그렇게 들볶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을 하시더라구. 우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은 學塾에도 못 가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또 의원을 청해 약을 드셔야 할 판이야.(제83회)

39) 《紅樓夢》 6권, 253쪽.

는 희망으로 다시 세상에서 돌도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보옥은 옥을 잃은 탓으로 일이 빠진 사람처럼 되기는 했지만 대옥과 곁
 혼하게 되었다는, 세상에 다시없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별안간 온
 몸이 가쁜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머리만은 그 진같이 영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熙鳳의 묘계가 들어맞아서 보옥은 한시바빠 대옥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있었다. 것처럼 고대하던 혼인날이 오늘로 닥쳐오고 보니
 보옥으로서의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하는 말은 아직도 얼마간 등신 같은
 데가 있었지만 기분만은 앓고 있을 때와 판판으로 명랑해졌다.⁴⁰⁾ (제97회)

그러나 이 즐거운 시간도 잠시, 그 후 보옥은 다시 병세가 더욱 중해져
 이튿날에는 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엔 미음이나 물조차 넘기지
 못하게 된다. 대옥의 증세가 가벼운 조증과 심각한 울증을 보인다고 한다
 면, 보옥의 증세는 조증과 울증을 비슷한 정도에서 경험하는 조울증의 증
 세를 보인다. 설부인 등은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명의라는 명의는 모두
 청해보지만, 병의 근원을 알아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보
 옥의 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병의 근원을 알아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성
 밖 낡은 절에 있는 성은 畢이요, 별호는 知庵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의원
 이 보고 그 병의 근원을 알아냈다. 병의 시초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급
 격하게 온 데서 일어난 것인데, 그 때문에 차고 더움이 조화를 잃고 음식
 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근심과 노기가 가슴 속에 맺혀서 正氣를 막아버리
 게 되어 內傷外感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 하였다.⁴¹⁾ (제98회)

그 누구도 병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畢知庵은 보옥의 병인이 급
 격한 기쁨과 슬픔에서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기쁨과 슬픔의 교차, 이러한
 증세는 바로 조울증과 일맥상통한다.

40) 《紅樓夢》 6권, 299-300쪽.

41) 《紅樓夢》 6권, 307쪽.

조울증(manic-depressive psychosis)은 순환정신병, 양극성장애 42)라고도 불리는데, 울증 또는 조증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회복되는 것이 특징인 정신질환의 한 종류이다.⁴³⁾ 이 병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생활 속의 사건과 환경적 스트레스 및 병전 성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중 하나에 의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뇌의 생물학적 상태에 장기간 지속되는 변화들을 연속적으로 일으켜 결국에는 이후에 외적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도 다시 재발하기 쉬운 생물학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이런 병의 발생에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1세 이전의 부모의 상실, 배우자의 상실, 죽음, 이별, 실패, 실망, 중요한 사람과의 논쟁이나 불화 등이 있다. 병전 성격으로는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의존적이거나 강박적, 히스테리성 성격에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낮은 자존감과 심한 자기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 더 흔하다.⁴⁴⁾

42) 장애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경우를 양극성장애라고 부르며, 한 가지 형태로만 오는 경우를 단극성장애라 부른다.

43) 조증과 울증은 주기적으로 교대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한쪽이 우세하거나 또는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다. 조울증환자는鬱氣에서는 슬프고 낙담하여 축 처져 있으며 활기가 없고 주변에 관해 관심을 나타내지 못하며 즐거움을 잃게 된다. 또한 식욕이 떨어지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울기에서는 지연성긴장·행동과다·절망·불안망상 등 흥분 상태를 보이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기분이 저하되며 슬프고 의기소침하며 자기비난·자기정시 경향이 짙은遲滯性으로 나타난다.躁氣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흥분·의기양양함·과대망상·떠들썩함·수다·주의산만·과민상태 등이 나타난다. 조기의 환자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르며 계속해 말을 하는데 말의 주제가 빠르게 변화된다. 또 극단적으로 열광적이거나 낙관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한다. 매우 사교적이며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몸짓이 많거나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과장된 생각과 자만심 등이 조증의 특징이기도 하다. 조증과 울증의 가장 극단적인 특징은 조기에서는 타인에 대한 폭력, 울기에서는 자살이다. 조울증은 또한 망상과 환각 같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울증이 더 흔한 증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조기는 나타나지 않고 울기에서 회복될 때 잠시 과도한 낙관과 약간의 안도감(多幸症)이 경험된다.

44) 《紅樓夢》 3권, 45쪽 : 보옥은 때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그렇다면 보옥의 조울증을 악화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嚴父와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보옥이 평소 가장 두려워 한 것은 대옥과의 이별, 소녀들의 죽음과 이별, 그리고 아버지였다. 특히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는 어린 보옥을 힘들게 했다. 보옥은 아버지가 부른다는 襲人의 거짓말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란다.⁴⁵⁾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보옥의 할머니 大夫人은 보옥을 지켜주기 위해 힘썼다.⁴⁶⁾ 그러나 보옥이 배우기관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된 賈政은 대노하여 大夫人이 없는 동안 보옥에게 심한 매질을 가한다.

賈政은 王夫人이 방 안에 뛰어드는 것을 보더니 마치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듯 더욱 무섭게 화를 냈다. 그는 손에 쥐어진 곤장을 더욱 무섭게 보옥의 몸에 내려쳤다. 보옥을 붙들고 있던 두 하인은 어느 곁에 손을 놓고 물러났지만 보옥은 이미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⁴⁷⁾ (제29회)

賈政의 처사는 엄연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賈政은 ‘조상과 가문의 명예를 빛낸다’⁴⁸⁾는 명목으로 아들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다.⁴⁹⁾ 아버지의

보여주는데, 이는 다음의 독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버님께서 나를 가리켜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엿보고 바가지로 바닷물을 채는 놈이라고 하신 것도 무리가 아니야. 엿저녁에 내가 너희들의 눈물로 나를 장사지내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었어.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그 진부를 독차지 할 수 없어.” (제36회)

- 45) 《紅樓夢》 2권, 195쪽 : 때마침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襲人이 들어왔다. “어서 돌아가 옷을 갈아입으세요, 아버님께서 부르세요.” 아버지가 부른다는 소리에 보옥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정신이 아찔했다. (제26회)
- 46) 《紅樓夢》 2권, 260쪽 : 장도사는 얼른 보옥을 끌어안으며 안부를 묻고 나서 大夫人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도련님은 전보다 아주 튼튼해지셨군요.” “글쎄, 걸보기엔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라니까요. 게다가 이 에의 아범이 자꾸 공부만 하라고 몰아대는 통에 기를 펴 수가 없어 병이 날 지경이란 말예요.” (제29회)
- 47) 《紅樓夢》 2권, 260쪽.
- 48) 《紅樓夢》 2권, 335쪽 : “어머님! 제가 자식을 길들이려는 것도 결국은 조상과 가문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33회)
- 49) 《紅樓夢》 2권, 333쪽 : “차라리 내 오늘 이렇게 된 바에야 이놈을 아주 죽여

엄격함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는 《紅樓夢》에서 종종 등장한다. 아버지의 엄한 처벌은 보옥에게 자존감의 상실과 불안을 초래하였고, 아름답고 상냥한 누이들을 향한 집착을 초래하였다. 그녀들은 보옥에게 있어 영혼의 안식처이자 도피처였기에, 그녀들의 소멸과 그녀들과의 이별은 보옥의 병증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Ⅲ. 정신질환과 紅樓夢

1. 주인공의 정신질환과 글쓰기

앞에서 대옥과 보옥, 두 주인공의 정신질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에는 두 사람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등장한다.⁵⁰⁾ 그러나 그 빈도나 정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대옥과 보옥 두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록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멍청하다거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평소에는 오히려 비범한 천재성과 뛰어난 문장력을 자랑했다. 책에는 두 사람의 증세를 ‘痴病’⁵¹⁾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들의 비범한 知力이 오히려 병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천재성과 병증은 두 사람의 가장 강력한 공통 점이며⁵²⁾,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심화된 증상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천재성은 주로 글쓰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후환을 없애버려야지.” 賈政은 목을 졸라 죽일 테니 밧줄을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다.(제33회)

50) 보옥과 대옥 외에 賈瑞, 尤氏, 秦鍾, 妙玉, 香菱, 王熙鳳 등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다.

51) 《紅樓夢》 2권 267-268 쪽: 원래 보옥은 어려서부터 워낙 괴상한 痴病 을 가지고 있었고, …… 마침 대옥 역시 痴病의 소유자였다(原來那寶玉自幼生成有一種下流痴病, …… 那林黛玉偏生也是個有些痴病的).(제29회)

52) 《紅樓夢》, 2권 223쪽: “사람들은 나(대옥)를 어리석은 병에 걸렸다고 비웃고 있는데 나 말고도 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보옥)이 있었던가?”(제28회)

제17회에서 大觀園에 쓰일 扁額의 이름을 짓기 위해 賈政은 문객들과 보옥을 초청한다. 문객들이 화초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허둥댈 때, 향초의 이름을 줄줄이 읊기 시작하는 보옥의 모습에서⁵³⁾ 그의 뛰어난 인지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보옥은 각가지 경물에 어울리는 扁額⁵⁴⁾과 對聯⁵⁵⁾을 훌륭하게 완성한다. 문객들은 보옥을 향해 “천분이나 재기가 어찌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습니까? 쓸데없이 글을 읽어 씩힌 저희들과는 전혀 다르군요.”라고 입을 모았고, 제18회에서 近親을 온 元春 역시 “보옥이가 벌써 글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 밖의 일이고 또 기쁜 일이야.”라며 찬상한다. 그의 나이가 12살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元春의 찬상은 매우 지당하다.

한편 대옥의 창작력과 문장력은 보옥보다 더 탁월하다. 제18회는 元春은 여러 자매들과 보옥으로 하여금 扁額에 어울리는 대련을 짓도록 하여 글쓰기의 장을 열어주는데, 여기에서 대옥은 단연 두각을 드러낸다. 글짓기에 있어서는 迎春, 探春, 惜春의 세 자매들도 재능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探春이 가장 뛰어났다. 그러나 探春조차 대옥의 실력이 너무나 월등하여 어깨를 겨룰 도리가 없다고 여겼다.⁵⁶⁾ 貴妃의 앞에서 열 살의 나이

53) 《紅樓夢》 1권, 338쪽: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속에 설여와 등라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 향기가 짙은 건 두약과 형무올시다. 저쪽은 채란이고 이쪽은 청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금등초, 이것은 옥로등 저기 있는 좀 더 빨간 것은 자운이고 파란 것은 틀림없이 청지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하는데 저 《離騷》나 《文選》같은 책에 나오는 진기한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광납이니 강휘이니 하는 것도 있고 자룬이니 자강이니 하는 것과 석범, 수송, 부류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녹이라는 것도 있고 단초, 미무, 풍련 같은 것도 있습니다.”(제17회)

54) 보옥은 각 경물에 曲徑通幽處, 沁芳, 有鳳來儀, 杏帘在望, 稻香村, 蓼汀花溼, 蘅芷清芬, 沁芳水門, 紅香綠玉 등의 명칭을 제시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편액에 사용되었다.

55) 보옥은 편액에 어울리는 대련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봄물이 불어오니 빨래터에 푸르름 짙어지고, 꽃구름 피어오매 미나리 캐는 여인을 지켜주네.” “두구 꽃 읊는 시 들을수록 아름답고, 장미꽃 꿈결에 봐도 그 향기 그윽하네.” 《紅樓夢》 1권 335, 340 쪽 참고

56) 《紅樓夢》 2권, 27쪽: 탐춘이 스스로는 도저히 보채나 대옥과는 어깨를 겨룰

었던 대옥은 일필휘지로 시를 지어낸다.

대옥은 사실 오늘밤에 재주를 다해 다른 사람들을 놀리버릴 생각이 간절했지만, 귀비께서 편액과 시를 한 수씩만 지으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마음대로 더 지을 수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팔행시 한 수를 지어내고는 손을 털고 물러앉았던 터였다.⁵⁷⁾ (제18회)

대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상을 떠올리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보옥에게도 시를 지어 넘겨준다.

대옥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시상을 다듬더니 어렵지 않게 한 수 지어서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둘둘 말아서 보옥의 앞에다 내던졌다. 보옥이 그것을 집어서 펼쳐보니 자기가 지은 앞의 세 수에 비해서는 열배도 더 나은 것이었다. 보옥은 날듯이 기뻐다.⁵⁸⁾ (제18회)

이후, 대옥은 大觀園 내의 詩社에서 瀟湘妃子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제37회 海棠詩社에서는 차석을 제38회 菊花詩社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책에서는 글짓기에 임하는 대옥의 모습에 대해 각기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옥은 냉큼 붓을 들어 단숨에 썩썩 갈겨쓰더니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던졌다.(說著提筆一揮而就, 擲與衆人.) (제37회 3권 60 쪽)

대옥이 아무 대답 없이 붓을 집어 들고 별로 생각지도 않고 붓을 들어 한번 휘두르니 시 한수가 나왔다.(黛玉聽了, 並不答言, 也不思索 提起筆來一揮, 已有了一首)"(제38회 3권 95 쪽)

도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마지못해 남들의 뒤에 붙어 체면이나 차릴 생각이었다.(제18회)

57) 《紅樓夢》 2권, 30 쪽.

58) 《紅樓夢》 2권, 31 쪽.

우리는 시를 지어내는 대옥의 모습에서 그녀의 천재성과 용솨음치는 창조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제38회에서 보옥이 대옥의 시를 보고 갈채를 보내자, 대옥은 시고를 뽀뽀 찢어서 시너더러 불에 태우라고 한다. 시고를 아무렇지 않게 찢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녀에게는 언제나 시가 샘솨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두 사람에게 있어 재능을 표출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표출하고 교류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21회에서 보옥이 《莊子》의 <胠篋篇>을 읽고 난 후 흥이 나서 글을 적자, 대옥은 그 글을 보고 시구로 평을 달아준다. 또한 제22회에서 보옥이 대옥과 사이가 틀어진 후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나서 붓을 뽑아들어 偶文을 쓰고 좋아하자, 보옥은 글을 보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반면 대옥은 보옥을 찾아가 한 구절을 더 보태어 보옥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준다.

大觀園에서의 생활은 두 사람에게 더욱 많은 사상과 글쓰기의 조건을 제공했다.

이곳(大觀園)으로 옮겨온 보옥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으므로 더는 아무 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날마다 누이들이나 하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거문고를 타고 장기를 두고 그림을 그리다가, 싫증이 나면 시를 짓고 봉황을 본떠 수를 놓다가, 지치면 뜰에 나가 꽃밭을 거닐기도 하고 흥이 나면 콧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글자풀이, 수수께끼 맞추기 실로 안 하는 것이 없이 자유분방한 나날을 보냈다.⁵⁹⁾ (제23회)

이 인용문을 볼 때, 책 읽기와 글씨 쓰기, 시 읊기 등은 보옥에게 있어서 유희이자 즐거움임을 알 수 있다. 대옥 역시 大觀園에서 많은 작품을 지어낸다. 제27회에서 대옥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葬花詞를 읊자 보옥이 혼절하기도 하는데, 대옥의 시가 그만큼 슬프고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大觀園 안에서의 생활과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59) 《紅樓夢》 2권, 128-129쪽.

서 비롯된 슬픔과 기쁨은 글쓰기로 연결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시상의 원천이자 知音이었던 것이다. 제34회에서 대옥은 보옥이 보내준 두 장의 손수건을 받고나서 시를 써내려간다.

‘보옥이 이토록 나의 괴로운 심정을 살피주고 있었던가? 눈물이 나도록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또 나의 가슴 속에 감추어진 이 뜻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슬퍼지누나. ……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해 보노라니 마음은 더욱 견잡을 수가 없었다. 대옥은 시녀에게 등불을 켜게 해놓고는 남의 눈을 꺼리거나 피할 생각도 없이 붓에다 먹 을 묻혀 그 두 개의 손수건에다 시를 썼다. …… 침대에 올라가 누워서도 대옥은 손수건을 가슴에 댄 채 달콤한 공상에 잠겨 있었다.’⁶⁰⁾ (제34회)

보옥이 보내온 손수건을 보며 자신을 향한 보옥의 사랑을 감지한 대옥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슬픔이 뒤엉켜 시를 토해낸다. 두 장의 손수건이 준 행복은 대옥에게 시상을 제공하였다. 대옥에게 있어서 보옥은 바로 시상의 원천이자 뮤즈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 대옥은 이때 열이 확확 오르는 기운을 느낀다.

대옥은 계속하여 더 쓸 생각이었지만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지고 두 불이 확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으므로 경대 앞에 다가가 휘장을 들치고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쳐진 두 불은 스스로도 반할 만큼 복숭아같이 빨갭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병의 시초였던 것을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⁶¹⁾ (제34회)

대옥에게 조증과 울증, 그리고 글쓰기와 병의 시초가 함께 도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주인공이 작가의 분신이거나 투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작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

60) 《紅樓夢》 2권, 353쪽.

61) 《紅樓夢》 2권, 353쪽.

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울의 정서와 대옥의 글짓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쓸쓸함과 우울함이 밀려올 때 대옥은 붓을 들었다.

그런데 아직 날도 저물지 않았는데 하늘이 흐려지면서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을날의 장맛비 소리는 내리다 그치고 그치다 내렸다. 차츰 짙어가는 황혼 속에서 대나무 가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대옥은 처량한 기분이 들었다. …… 대옥은 문득 느끼는 바가 있어 시구가 솟아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별에 대하여>라는 한 수의 시를 지었다.(黛玉不覺心有所感, 亦不禁發於章句, 遂成<代別離>一首)⁶²⁾ (제45회)

처량한 기운은 시상으로 표출되고 곧 작품이 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창작의 영감이었으며, 두 사람의 병증과 우울함 역시 창작의 원인을 제공했다. 작품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과 癡症을 앓는 이가 최고의 시인이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병증과 우울증은 오히려 작가의 창작을 유도하기도 한다. 우울증은 문학적 전통에서 늘 존중되어져 왔던 병적 주제와 비극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2. 작자와 하이퍼그래피아

글쓰기는 인간이 이룩해 낸 뛰어난 업적이며, 인간이 이룩한 가장 뛰어난 업적 중의 하나이다.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마음인 동시에 뇌이다. 그렇다면 마음과 뇌와 창조적 글쓰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작자로 하여금 이처럼 뛰어난 창의성을 지닌 작품을 완성하게 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앞에서 《紅樓夢》의 두 주인공이 겪었던 나타난 정신 질환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작품에 묘사된 주인공의 심리와 정신 질환의 양상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주인공의 정신질환이 작자와 깊은 연관

62) 《紅樓夢》 3권, 230쪽.

성을 지녔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 소개된 의뢰지식은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작자가 이런 의료적 환경에 장기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 비록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혹자는 曹雪芹이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이라 추정한다.⁶³⁾ 그렇다면 작자로 하여금 집필에 몰두하게 한 동기와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오늘에 이르러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나는 임금의 은혜와 조상의 은덕에 힘입어 비단으로 몸을 휘감고 고량진미도 마다하던 그 시절, 부모가 가르킨 은혜를 배반하고 스승과 벗들이 훈계해준 은덕도 저버렸기에 이날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채 반생을 덧없이 지낸 죄를 짓고 말았다. 이제 책 한 권을 저술하여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 나의 허물은 씻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 감추려는 나의 불찰로 말미암아 규방 속의 재간 많은 아녀자들의 존재가 매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인지 내가 비록 누추한 초가집에 쭉대 엮은 들창을 내고, 노근 엮은 침상에 질그릇 술을 쓰며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삼돌 앞의 버드나무와 뜰 안의 꽃들이 붓을 놀리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는데야 어찌하겠는가!⁶⁴⁾ (제1회)

작자는 작품의 서두에서 전 반평생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술한다. 버드나무와 꽃들이 “붓을 놀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한다.”는 그의 고백은 글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작자의 욕망을 짐작하게 한다. 부유했던 그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상처들과 그 과정에서 범했던 자신의 허물이 그로 하여금 붓을 들게 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창작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⁵⁾ 가난과 고통

63) 合肥晚報 2003年 9月 26日：“甚至有人說近代哲人王國維、《紅樓夢》作者曹雪芹皆患有不同程度精神疾病。”(<http://www.hf365.com>)

64) 《紅樓夢》 1권, 13-14쪽.

65)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 155쪽 :우울증에 있어 가장 널리 통용되는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의사에게 현재의 느낌들과 체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형

은 작가로 하여금 더 깊은 창작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심리학자들은 작가의 ‘공허함’이나 ‘질병’이 창의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⁶⁶⁾ 신뢰할 만한 과학적 통계에 의하면 창의적이라고 인정받는 뮤지컬 배우, 시인, 소설가, 화가, 작곡가들 중 70%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족력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가까운 친척 중에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다.⁶⁷⁾ 신경학자들은 글을 쓰고자 하는 주체 못할 욕구, 즉 ‘하이퍼그래피아(hypergraphia)’⁶⁸⁾가 뇌의 특정 부위에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뇌에서 미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욕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귀 뒤쪽에 위치한 한 쌍의 측두엽이며, 두 번째는 창조적인 글쓰기와 큰 연관성을 가진 변연계⁶⁹⁾이다.

식이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오랫동안 우울증의 최고 치료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지금도 치료법으로 남아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세월(The Years)》에서 “기록을 하면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고백했다

- 66) 문학가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신분화적 모델로, 창의성은 무의식에서 내재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프로이트는 창의적인 작품이란 과도한 리비도 에너지가 ‘승화’를 통해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예술적인 창작은 우울함에서 오는 공허함의 표현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클라인 학파의 한나 시겔은 예술가가 자신의 결점을 보상받기 위한 시도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유 없는 공격성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질박한 심정에서 창작 행위에 몰두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예술에서의 창의성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질병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조각가 세이트 고든스는 “샬러드에 향신료가 있다면 예술엔 광기가 있다.”라고 했다. 이런 생각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 엘리스 플래허티, 《하이퍼그래피아》 89-97 쪽 참고
- 67) 엘리스 플래허티, 《하이퍼그래피아》, 97쪽.
- 68) 하이퍼그래피아는 글쓰기 중독증을 표현하는 의학용어다. 《하이퍼그래피아》의 작가 엘리스 플래허티는 책의 서문에서 산후 우울증 이후 경험한 자신의 하이퍼그래피아 증세에 대해 “질병인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히포크라스는 이를 ‘신성한 질병’, 에드거 앨런 포는 ‘한밤중에 걸리는 질병’이라 부르기도 했다.
- 69) 변연계는 감정과 동기, 그리고 영감을 받아들이는 몇 개의 감각을 담당한다. 대뇌피질 아래 깊숙한 곳에 마치 반지처럼 그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하고 있기

하이퍼그래피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측두엽 간질⁷⁰⁾은 대표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간질은 오직 발작 시에만 증상을 보이지만(발작 시 증상), 어떤 이들은 발작과 발작 사이에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발작 휴지기 증상). 하이퍼그래피아는 바로 발작 휴지기 증상에 속한다. 하이퍼그래피어를 유발하는 질병에는 간질 외에도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과 문학적인 창작 욕구 간의 긴밀한 관계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철학이나 정치, 시인,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이들은 왜 하나같이 우울한 사람들인가?”라고 묻기도 하였다. 조울증은 유전되는 증상으로 그 기분이나 성격의 특징이 측두엽 간질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대단히 많은 작가들이 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⁷¹⁾ 단극성 우울증은 문학적 능력이나 관심과 연관 관계가 있으며 작가들은 일반인에 비해 단극성 우울증 비율이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울증을 가진 사람의 친척은 조울증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욱 왕성한 창작열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옥이 앓았던 우울증과 보옥이 앓았던 조울증과 간질이 바로 하이퍼그래피어를 일으키는 증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장애와 글쓰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작가들 중

때문에 변연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측두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70) 측두엽 간질을 지닌 사람들은 그 성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과 구별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른바 케슈빈트 증후군이라 불리는 특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특질은 모두 다섯 가지로 하이퍼그래피아, 철학과 종교에 대한 심취, 갑자기 난폭해지는 등의 감정의 격변, 성징의 변화(보통 성 행위가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수다가 심해지거나 혹은 너무 자세한 사항에만 매달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1) 조울증 전문가인 심리학자 케이 레드필드 제이미슨은 작가들의 조울증에 대해 깊이 연구한 바 있다. 제이미슨의 연구에 의하면 작가들 중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높고, 시인들의 경우엔 무려 40 배가 된다고 한다. 또한 시를 쓰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조울증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엘리스 플래허티, 《하이퍼그래피아》, 46-47 쪽 참고.

많은 이들은 무엇인가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여기엔 사별, 병, 자기에의 상처, 자존심, 사춘기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격한 감정과 고통은 변연계와 측두엽의 활동을 유발시켜 글을 쓰거나 소통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증가시킨다. 이 밖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글을 쓰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사랑이 있다. 특히 불행한 사랑은 병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원인보다 치명적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특히 응답 없는 짝사랑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존심은 글로 치유된다.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커지는 법이다. 작자 曹雪芹이 밝혔듯이 가세의 변화, 지난 시절에 대한 후회, 자신의 실수를 밝혀서라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여인들과의 관계는 글쓰기의 욕구를 증가시켰음이 분명하다. 상실의 아픔이 클수록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도 그만큼 더욱 커지기에 말이다.

IV. 결 론

우울증은 사랑이 지닌 결함이다. 우울증은 자아를 변질시키고, 마침내는 애정을 주고받는 능력까지 소멸시킨다. 우울증은 인간의 내면이 홀로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타인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까지도 파괴한다. 사랑은 우울증을 예방하진 못하지만 마음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되어 마음을 보호해준다.⁷²⁾

삶은 슬픔을 내포한다. 이루지 못한 사랑은 슬픔이 되고 지나친 슬픔은 질병과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이 질병과 우울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통로를 어떤 이들은 글쓰기에서 어떤 이는 그림에서 어떤 이는 음악에서 찾았다. 측두엽 간질과 우울증을 앓았던 고희는 어떤 화가보다도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한창일 때는 36시간마다 한 작품씩 완성하곤 했다. 심지어 그는 죽는 날에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초원으로 나섰다. 자신을 표현하려는 고

72)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 23쪽 참고.

호의 욕구는 그림에만 한정되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동생 테오에게 6페이지짜리 편지를 하루에 두세 통이나 보낼 정도로 많은 글을 썼다. 조울증을 앓았던 슈만은 많은 편지와 주옥같은 음악을 남겼다.

우리는 대옥과 보옥의 형상에서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조울증과 간질, 또 그들 속에 숨어있는 광기와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울증을 가진 사람의 친척은 조울증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욱 왕성한 창작열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曹雪芹은 보옥 자신이거나 친척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성을 얻는다. 작품의 주인공이 작가의 피조물임과 동시에 자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이 겪었던 아픔은 곧 작가의 아픔이었을 것이며, 작자가 겪었을 우울과 질병은 문학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정말로 정신질환은 창의성을 초래하는가? 예술 분야에 정신질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연구자는 역으로 정신질환자는 예술 이외에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작자로 하여금 장편의 대작 《紅樓夢》을 완성하게 한 원천은 그가 겪어야 했던 인생의 굴곡과 아픔, 그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서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재간 많은 여인들과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曹雪芹·高鶚, 《紅樓夢》, 寧波出版社, 2001.
 曹雪芹, 안의운·김광렬 옮김, 《紅樓夢》, 청년사, 1990.
 楊在鈞, 《紅樓夢養生趣談》, 人民軍醫出版社, 1994.
 가노우 요시미츠 지음, 동의과학 연구소 옮김, 《몸으로 본 중국사상》, 소나무, 1999.
 엘리스 플래허티 지음, 박영원 옮김, 《하이퍼그래피아: 위대한 작가들의 창조적 열병》, 휘슬러, 2006.

- 앤드류 솔로몬, 민승남 옮김, 《한낮의 우울》, 민음사, 2004.
오다 스스무 지음, 김은주 옮김, 《동양의 광기를 찾아서》, 르네상스, 2004.
장 라플랑슈 등 공저,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 사전》, 2005.
주일모 지, 김남일·인창식 공역,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범인문화사, 2000.
주앙 다비드 나시오 지음, 표원경 옮김, 《히스테리의 정신분석》, 백의, 2001.
賀志光, 金鍾石 譯, 《新中國漢醫學(中醫學)》, 裕盛出版社, 1995.
皇帝 지음, 이창일 옮김, 《皇帝內經》, 책세상, 2004.

<中文提要>

紅樓夢不盡是一部偉大的古典文學名著, 而且, 全書涉及醫學藥體系知識之處, 不下於6萬字. 裏面不盡介紹了醫學常識, 也闡術了有關情神疾病的面貌. 紅樓夢引證了大量的醫學理論話知識, 陳述了情神疾病的 這是中外小說史上罕見的奇跡. 本文以情神疾病爲切入點, 分析了林黛玉跟賈寶玉作爲詩人、病人的心理構成. 以情神疾病爲線索勾勒了黛玉跟寶玉的變化. 本文注意到賈府中存在大量情神病者這一特殊現象, 探討了這一現象背後的深刻內涵.

주제어: 紅樓夢, 疾病, 精神疾患, 憂鬱症, 躁鬱症, 多寫症, hypergraphia.